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 국민 여론은 선거 전의 양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이다. 대통령 지지율은 보선 다음 주 8개의 여론조사에서 평균 31.6%까지 떨어졌다. 그 후 대통령 지지율은 평균 35.4% (12개 조사) 35.5% (9개)로 보선 전 주의 평균 37%에 접근했다.

지난주 갤럽조사 역시 보선 직후에는 6월 이후 최저치인 30%로 떨어졌다가 보선 후 33%, 34%, 36%로 상승했다. 윤 대통령의 중동 순방과 박정희 추도식 참여 그리고 박근혜 면담 등이 결정적으로 보인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중 32%가 뽑은 '외교' 성과가 핵심이다.

지난주 NBS 조사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은 10월 마지막 주에 32%로 떨어졌는데 올 들어 4월 둘째 주와 함께 가장 낮은 수치다. 11월 둘째 주 대통령 지지율은 34%로 회복됐지만 대통령 국정운영 부정평가 역시 60%로 상승하면서 올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에 이르렀다.

한편 내년 총선의 성격은 '정권 심판론 vs 국정 지원론' 중 무엇으로 보느냐의 여론은 혼전이다. 한달 가격

대통령은 보호해야 한다!

의 갤럽조사에 따르면 정권 심판론은 50% 48% 46%, 국정 지원론은 37% 39% 40%로 이어진다. 이런 패턴은 비례대표 정당투표 의향에서도 나타나는데 국민의힘은 1% 포인트 앞섰던 11월 '39% vs 36%'로 간격을 조금 더 넓힌다.

하지만 10월에 있었던 10개의 관련 조사를 보면 9월에 비해 정권 심판론은 상승하여 평균 50.5% 국정지원론은 약간 하락하여 평균 38%를 기록한다. 정권 심판론이 50%를 넘긴 것은 작년 11월 이후 4월과 함께 두 번째다. 8월 이후로 보면 한쪽은 상승세 다른 한쪽은 하락세여서 이번 달 조사가 주목된다.

대통령 지지율이 내년 총선 승부를 결정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총선 전망은 어둡다. 특히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절반을 넘긴 정권 심판론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지지율의 '반전은 대통령의 변화로부터 시작한다'는 게 여론의 메시지다. 유권자 10명 중 6명 이상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초 전환이 필요하다'고 한다. 중도층은 70%, 보수층도 53%가 그렇게 믿는다.

하지만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대통령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도 57%가 그렇게 믿는다.

'신뢰의 위기' 앞에 서고 만 대통령의 쪼그라든 지지율은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의 책임론에서도 확인된다. 보선 패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전체 응답자와 중도층의 절반이상은 대통령을 지목한다.

하지만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은 다르다. 각각

31%와 15%에 머문다. 전체와 중도층에서 나타난 대통령 책임론의 절반 또는 그 이하 수준이다. '국민의힘 지지층 60%가 윤석열과 이준석 공천에 반대한다'는 조사도 같은 맥락이다. 30%대 초반대의 대통령 지지율은 결국 윤석열 지지층이 보수 일부와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으로 축소되었다는 뜻이다.

더 심각한 것은 '능력 위기의 징후'다. NBS 조사는 4주 간격으로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성을 묻는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는 8월 이후 '40% 38% 37% 34%'로 하락세다. 긍정적 평가는 40%가 최고 수치다. 부정적 평가는 7월 이후 '53% 53% 55% 57% 59%'로 상승세다.

신뢰 위기에 능력의 위기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 어려워진다. 윤석열 권력 실패의 입구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시종 2'라더니 '진윤의 신데렐라'니 하는 것은 세상 모르는 한가한 소리다.

물론 '알량한 정치 인생을 연장하면서 서울로 가지 않겠다'고 하거나 '아무리 권력자가 뭐라고 해도 할 말하고 산다'고 반발한다. 이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소신껏, 생각대로 말아서 임무를 끝까지 (하라). 당에게 필요한 것을 거침없이 하라' 이런 신호가 왔다"고 대응한다.

그들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변화와 쇄신을 가능하게 한다'. 창업 공신의 업(業)이고 모두가 사는 길이다. '머칠 만 숲 숲 공간'을 주고 큰 그림을 함께 그려야 한다. 지금 대통령은 보호해야 한다!

종교칼럼

수능시험과 그리스도인의 시험

시험에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였다. 핑계라면 헛발 알레르기 가 있었는데 하필 시험장에서 나에게 지정된 좌석은 햇빛이 그대로 들어오는 자리였다. 그 때문은 몸이 간지럽고 시험에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고 힘들었다. 결국 가고 싶어 하던 대학은 떨어지고 내 성격으로 갈 수 있는 대학교에 들어갔다.

지난 9월 모의고사를 치른 날 아이들이 귀가해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런저런 말로 이번 시험에 대하여 아쉬운 마음을 쏟아 내었다. 특히 수학의 경우 객관식에 비해 주관식이 더 어렵기 때문에 평소대로 객관식 먼저 풀기 시작했는데 그간 보아온 시험보다 어려웠다는 것이다. 급기야 시간이 없어서 주관식은 손도 못댄 문제가 많았다고 한다. 그런데 시험 끝나고 다른 친구들은 주관식이 많이 쉬워서 그것부터 풀었더니 평소보다 시험을 잘 보았다고 했다. 아이들은 아쉬워하며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지 못한 자신을 탓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며 수능을 보기 전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서 잘 되었다고 수능시험 볼 때는 문제들을 살펴보고 풀어 보면 좋겠다고 위로해 주었다.

"대학에 합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학과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담임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또한 "내신이나 수능 등급이 어떻든 점수에 맞춰 갈 수 있는 대학은 많습니다. 하지만 학생이 가고 싶은 곳에 지원해서 합격할 수 있는 자가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라고 지난 입시 설명회에서 들었던 것이 생각이 난다. 급하고 안타까운 마음

에 나도 모르게 아이가 원하는 진로나 가고 싶어 하는 학과보다는 대학 간만에 연연하고 있었다. 비인기 학과여서 그 대학에 가는 게 좋은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자녀들의 입시 때만큼이나 간절하게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꿈과 비전을 향해서 살아 가기를 기도한 적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객관적인 안목과 테스트를 통해 자기 신앙 점검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하나님의 첫 시험은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데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하며 시작된다. 목자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황당한 요구이었지만 그는 순종하였고 완전하게 통과하며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는다. 사실 그 시험은 아브라함과 아들인 이삭이 동시에 치르는 시험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자기를 죽이려 하는 아버지의 광기어린 행동에도 아들 이삭은 가만히 당하고만 있기 때문이다.

신약성경의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삶에서 많이 드러날수록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이 아니겠는가. 수능시험에 좋은 성적을 거두고 기뻐하듯 우리도 신앙의 성적표를 들고 기뻐하게 하기를 소망해 본다.

社說

광주시 공항 분리 이전 제안, 갈등만 키운다

광주 공항을 전남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놓고 광주시가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분리해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동시에 무안으로 이전하길 희망하는 전남도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갈등만 키워 공항 이전 문제를 더 꼬이게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광주시는 그제 공식 브리핑을 통해 "전남도가 최근 광주 군공항 이전지로 합평군 언급 중단을 요구한 것은 유감이다"며 "무안군과 합평군 모두로부터 유치의향서가 제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민이 동의한다면 군공항은 합평으로 민간공항은 무안으로 같은 시기 이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전남 내 지지세가 유치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전남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를 부탁한다며 전남도에 즉각적인 시도지사 면담을 요청하고 시도지사를 포함해 무안군수와 합평군수가 만나 4자 회담을 제안했다.

광주시가 공항 분리 이전을 공식적으로 주장한 것은 처음으로, 광주·전남의 최대 현안인 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지의구심을 갖게 한다. 지금까지 전남도는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무안군을 지정하고 설득에 공을 들여 왔다. 무안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공항을 가져오려면 군공항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그런데 광주시는 민선 8기 들어 군공항 후보지로 합평군을 거론하다니 급기야 군공항과 민간공항 분리 이전이라는 카드도 공항 이전 갈등을 키우고 있다.

전남지사와 만남을 통해 공항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없이 부시장이 브리핑 형식으로 분리 이전 입장과 함께 4차 회담을 제안한 것도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광주시는 광주·전남 상생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공항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분리 이전이라는 썩수로 시간을 끌려는 의도가 있다면 시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재정난 광주 문화사업 우선 순위 정해 추진해야

광주시가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이후 최악의 재정난을 겪으면서 주요 관광·문화·예술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0일 광주시의회에 올해보다 2019억 원이 줄어드는 6조 9083억 원의 내년 본예산을 제출했는데, 전년 대비 광주시의 연간 예산이 줄어든 것은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이다.

광주시의 내년 본예산 감축으로 위기를 맞은 분야는 관광·문화·예술 사업이다. 관광사업의 경우 아시아 예술 관광 중심도시 조성, MICE 산업 육성,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건립 등이 주요 조정 대상이다. 아시아 예술 관광 중심도시 조성 사업은 내년 6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이는 올해 예산 30억 원과 비교하면 80% (24억 원)나 줄어든 것이다. 특히 MICE 산업은 올해 93억 6000여만 원에 비해 무려 65억 751만 원(69.5%)이나 삭감된

28억 5000여만 원만 반영됐다. 문화예술 분야에선 비엔날레 제2전시관, 광주 대표 도서관, 하남 시립도서관,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등이 직격탄을 맞았다. 사업별로 연차별 예산이 대폭 삭감됐거나 반영되지 않아 완공 지연 등이 예상된다. 국·시비 1182억 원이 투입될 비엔날레 제2전시관은 완공 목표 시점이 2026년 말에서 2027년 말로 연기됐다. 광주 대표 도서관의 완공 시기도 6개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한 관광·문화 사업들이 차질을 빚게 됐다는 점이다. 물론 재정난으로 인한 예산 삭감을 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일회성 사업인 지역화폐 할인 유치가 435억 원을 투입하면서 지역의 미래 사업들을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 광주시는 재정 집합의 우선 순위를 정해 핵심 현안사업들의 차질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

無等鼓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신인왕 유해란은 영암 출신이다. 그가 처음 골프와 인연을 맺은 건 유치원에 다닐 때. 특수 체육시간에 골프채 잡는 법을 처음 배우고 공을 쳐보니 너무 재미있었다고 한다. 곧바로 아버지와 함께 실내연습장에 갔는데 어렵다고 받아주지 않아 1년을 더 기다린 뒤 초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본격적으로 골프인생을 시작했다.

신인왕 유해란

유해란은 광주 송일중 2학년 때 스타 등용문이라는 프랑스 '에비앙 챔피언십 주니어컵'에 출전해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우승하며 2관왕에 올라 주목을 받았다. 송일중 2학년 때 유해란은 경기 뒤 "코스카 잡지만 내 공은 죽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과감하게 플레이 한 것이 효과를 봤다"며 웃었다. 공교롭게도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영암군 금정면 출신 유해란과 시종면 출신 김세영이 선두 다툼을 벌이며 우승 경쟁을 펼쳤는데 또 다른 재미를 선사했다.

유해란은 장타력과 정확성, 퍼팅 능력 등 모든 부문에서 LPGA 정상급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첫 승과 함께 신인왕까지 받아 다음 시즌이 더 기대되는 선수다. 어차 해(鮫)에 물결 란(灘). '큰 물에서 물고기를 잡는다'는 이름 그대로 큰 바다로 간 유해란. 그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이제부터다. /유재만 편집담당자 jkyou@

기 고

배추 곱절이



**이중식**  
소설가

소설을 한 편 쓴 기분이었다. 혼자 배추 곱절이를 담긴 후였다. 곱절이를 먹어본 아내가 배추가 덜 절여졌다며 웃었다. 그제야 배추 숨이 덜 죽어 뻗뻗해 보였다. 소설도 스스로 잘못된 부분을 알아내는 데 시간이 걸린다. 유튜브에서 하라는 대로 곱절이를 담았는데도 그랬다.

아내가 반찬 때문에 힘들어해 뭔가 도움을 주고자 시도했다. 곱절이를 담그는 내 방식은 아주 간단하다. 아내보다 양념 재료를 훨씬 다양하고 많이 넣는 것이다. 쉽게 말해 곱절이가 맛이 없더라도 양념맛으로 먹도록 하려는 의도다. 아내는 절약하느라 양념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나는 아내가 사용하지 않은 사과, 배, 쪽파, 새우젓을 넣었다. 당연히 붉은 고추, 까나리 액젓, 멸치액젓, 매실청 그리고 쌀밥도 함께 버무렸다.

곱절이가 완성되니 잘못된 부분이 속속 드러났다. 먼저 배추를 조금 길고 엷비슷하게 잘라야 하는데 그냥 짧게 잘라버렸다. 얇은 깍두기 느낌이 났다. 다른 한가지는 붉은 고추를 믹서기에 갈지 않고 가늘게 썰어 쪽파, 부추와 함께 마지막에 버무렸다. 어릴 때 어머니가 절구통에서 고추를 갈던 기억이 떠올랐지만, 그때는

고춧가루가 귀해서 그랬을 것으로 생각했다. 믹서기에 다른 재료들과 함께 갈았으면 훨씬 더 배춧속에 잘 스며들었을 터이다. 마치 에피소드가 잘 자리 잡아 소설 속에서 우렁찬 울림이 나듯이.

완성된 곱절이의 겉모양은 그럴듯했다. 곱절이가 완성되자 아내의 굵은 행동이 비뻤졌다. 맨 먼저 자기 친구들 카톡방에 사진을 올렸다. 그 다음 근처에 사는 지인한테 곱절이를 가져갔다. 배추가 조금 덜 절여졌다는 얘기를 들었다.

"여자들은 그냥 알아. 그래도 당신 대단하다고 다들 칭찬이야."

웬지 아내 친구들의 남편에게 욕을 먹을 것 같았다. 여전히 아내는 여기저기 전화로 곱절이 자랑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면 배추를 적당히 절이는 것이 어떤 거야.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아야 하잖아."

"그건 우리도 잘 몰라. 여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배추 적당히 잘 절이는 거야."

다음에 배추 절이는 것을 잘 보여주어 할 것 같았다. "오늘 엄청나게 잘했어. 그런데 어떻게 김치를 담글 생각을 했어. 어려울걸."

"내가 중학교 때부터 비 오는 날 가족 팔족 담장이었어." 처음 듣는 새로운 사실에 아내의 눈이 반짝였다. "말가루 반죽해서 방망이로 얇게 펼친 후 잘게 깔질 해 죽을 찐지. 어머니도 인정한 죽 잘 찐 아이였어." 어린 시절에 비만 오면 밀가루죽을 섞 먹었다. 어릴 때는 무엇이었는지 잘했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다.

"너무 피곤하네. 곱절이로 막걸리나 한잔하고 자야겠다."

김치냉장고를 여니 웬걸 곱절이를 담아놓은 작은 통이 여러 개다. 아내가 씩스럽게 웃었다. "이건 친구 정이 줄 거고, 그 옆에 겨는 친구 숙이 줄 거야. 당신 모르게 줄려고 했는데 들키퍼렸네, 호호."

나는 아내를 쳐다보았다. 곱절이 한 번 담근 것에 이렇게 좋아한 걸 보니 외진작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미안했다. 여기저기서 곱절이에 대한 평가를 듣고 나니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웠다. 붉은 고추를 믹서기에 넣지 않고 고평처럼 예쁘게 보이려 한 것도 그랬다. 시놉시스를 쓰지 않고 장편소설을 쓰다가 곤욕을 치렀듯이 곱절이 담글 때도 준비를 대충 해 놓고 작업을 하니 실수한 것이 많았다. 잘 갖춰놓았다라면 훨씬 더 맛있었을 것이 확실했다.

마지막으로 팔족을 쓰면 훨씬 음식맛이 깊었을 텐데 귀찮아서 그냥 밥술에 밥을 퍼 사용했다. 소설 쓰다가 막히고 지칠 때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써 놓았던 글을 복사해서 붙인 느낌이었다. 뒤 대충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하던 잘못된 습관이 남는 결과였다. 소설을 쓸 때처럼 조금 집중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명작 소설과 명품 곱절이도 다음 기회로 미룰 수밖에 없다. 옮겨올에는 더 맛있는 김장이 만들어질 조짐이 보였다. 게다가 빛나는 소설은 덤으로 따라온다. 건실한 삶 속에서 아름다운 소설이 태어난다는 것을 한번 도 의심한 적이 없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b>金汝松</b>	논설실장 <b>張必洙</b>	편집총괄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국 신청 배달 안배))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64 전 남 본 부 220-0680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3 체 육 부 220-0697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